대학생 예비창업자, 해외에서 수출길 모색

전북대 창업동아리, 해외 박람회서 수출 길 개척 등 좋은 성과

전북대 지원으로 운영되는 창업동아리 4개 팀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2017 미얀마 한국상품&소싱 페어'에 참여해 자신들의 창업 제품을 선보였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창업동아리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만든 창업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바이어들에게 소개하고 수출길까지 모색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다.

전북대 지원으로 운영되는 창업동아리 4개 팀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2017 미얀마 한국상품&소싱 페어'에 참여해 자신들의 창업 제품을 선보인 것.

전북대는 매년 5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을 발굴, 창업동아리를 팀 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제품 제작비도 지원한다.

이 중 우수 팀들은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뉴실크로드 개척단'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해 직접 부스 운영을 통해 제품 판매와 해외 바이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4개 창업동아리 팀이 참여해 전통매듭을 이용한 액세서리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마카롱,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가 들어간 셀프 핸드메이드 다이어리 등을 해외 박람회에서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기 때문에 추후 해외 수출 길을 개척하는 등의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전북대는 지난 2015년에도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한 박람회에 창업동아리 팀들이 참가해 제품 판매와 바이어 1:1 상담 등으로 미얀마의 시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미얀마는 매년 5천5백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기반으로 약 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만영 창업교육센터장은 "미얀마는 '포스트 브릭스(BRICs)'로 떠오르고 있는 'VIM(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시장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감성나눔주간 프로젝트 '오감놀장' 예술놀이터

전주원동초등학교(교장 홍애경)는 예술꽃 씨앗학교와 연계해 감성나눔주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오감이 즐거운 놀이를 통하여 다양한 예술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직접 몸으로 표현하고 연주하면서 원동초등학교가 예술놀이터로 변신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동초 인근에 있는 물고기 마을로 오감모험을 떠나면서 시작되어 상상하Go! 드로잉하Go! 색칠하Go!를 통해 전교 어린이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체험하며 오감놀장의 주인공이 되어 준비하고 있다.

물고기 마을과 관련된 스토리를 현대무용과 연극 등으로 풀어내어 다양한 이야기가 공연으로 전개될 예정이며 소중애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오감을 열어줄 토크도 준비되어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감성나눔 주간에 참여해 '나는야 학부모! 우리도 예술가'를 통해 아트마켓 전시품도 뚝딱! 만들어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

요셉보이스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술가이다"라는 말처럼 원동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예술가 모두가 심미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통하여 감성을 향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감성나눔주간 마지막 날인 11월 3일은 가족, 지역주민, 예술가 등 관심 있는 분들을 초대하여 공연 및 아트마켓을 함께 감상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예술꽃 씨앗학교와 연계하여 금구초등학교(예술꽃 씨앗학교 6기, 사진 분야) 학생들을 초대해서 1일 사진작가가 되어 오감놀장 예술놀이터를 사진으로 기록해 줄 예정이어 더욱 뜻깊은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전고생, 순례길서 교훈얻다

전주고등학교는 입시 교육의 힘든 과정을 겪는 학생과 교사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담긴 자연 속을 걸으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고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걷기 행사를 지난 5년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전주고는 최근 교사와 학생들 100여 명이 지리산 둘레길을 종일토록 걷는 행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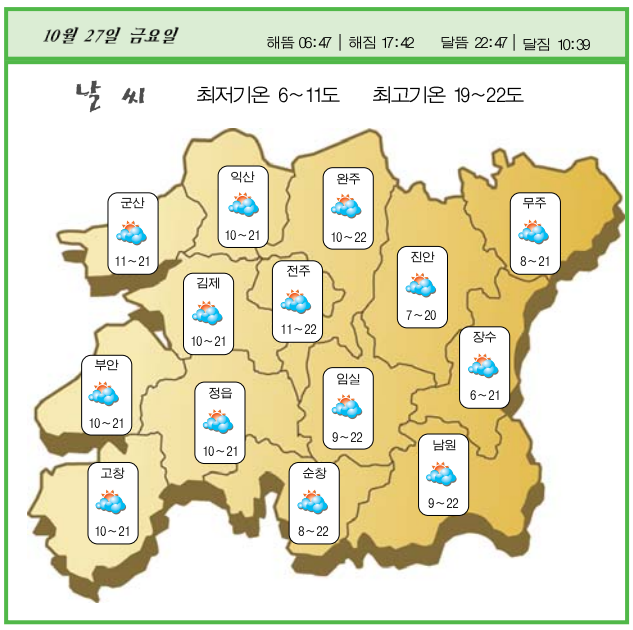
벌써 17번째로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순례길' 모든 코스를 걸었으며 이제 더 나아가 지리산 둘레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한 학기에 두 차례 일 년에 네 차례, 정기고사가 끝나는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이 행사의 본래 명칭은 '(나)를 찾아 걷는 아름다운 순례길'이다.

종교적 행사가 아니며 극기 훈련의 형태도 아닌 이 행사는 오직 들과 산, 그리고 강과 언덕으로 난 길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느리고 편하고 기쁜 마음으로 걸으면서 일상에서 놓친 소중한 의미들을 찾고 성찰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매번 순례길을 걸을 때마다 20여km를 걷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6시간 이상을 걷기도 한다.

이 행사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 전주고 조용신 수석교사는 "학생들이 길 걷기를 통해 입시 공부에 지치고 좌절한 심신을 치유하고 일상의 작은 의미들을 되묻는 계기를 만들어 학습 의욕을 회복하였으며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제훈련 강화 재난대응 능력 제고 중점

전북도교육청이 재난 대응능력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며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 도내 전 교육기관과 학생, 교직원이 참여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 관련 표어 만들기, 포스터 그리기, 동영상 시청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행사와 자체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 재난훈련으로는 1일차 특수학교 화재 대피훈련, 2일차 기관별 취약분야 선정 현장훈련, 3일차 전국 지진·지진해일 대피훈련, 4일차 학교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대응훈련, 5일차 불시기능점검 훈련을 실시하며 재난상황 대비 상황보고 체계 훈련도 이루어진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안전 확보 방안, 지진 발생에 따른 학교 사고 수습훈련 등 본청 각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토론훈련을 진행 할 예정이며, 3일차에는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훈련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론기반 훈련과 취약분야에 대한 실제훈련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기자

금구초·중,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음악회 열어

마을과 하나 되는 교육을 추구해온 금구초중학교는 26일 오후 4시부터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가을 음악회를 마련했다.

명칭은 '금구느티나무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이다.

이 무대는 김제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드림앙상블의 공연에 맞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출연해 함께 꾸며지게 된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문화공간 '금구느티나무문화뜰'에 특별 무대를 마련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먼저 전문 공연팀인 드림앙상블이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 오보에 등으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연주하며 초등학생들이 꾸미는 하모니카 합주와 중학생들의 오카리나 연주, 그리고 김판용 교장 외 3명의 교직원이 무대에 올라 '역마차' 등 아코디언을 연주한다.

/김제=곽노태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남원산림조합 정기예금

숲과 함께하는
산림조합에서 착한 금리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안전한 산림조합과 함께하세요.

1년 정기예탁금 이율
2.1%

• 1인당 최대 비과세 8천만원 (남원시 거주)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해 1인당 5천만원 보장
• 남원 금융기관 최고이율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어린 나무가 큰 나무로 자라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남원산림조합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남원산림조합 금융 Tel. 063)631-2011